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2. No. 1. 2001

至言高論에 의한 韓醫學의 精神治療에 對한 研究 (醫案을 중심으로)

김근우 · 구병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교실

A study of psychotherapy by means of oriental medicine though the Giungoroen(至言高論)-Focusing on Ancient clinical document

Geun-woo Kim · Byong-Su Gu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Seoul, Korea

Objectives: In order to overcome psychotherapeutic problems though the theory of oriental medicine by means of the Giungoroen(至言高論-wise saying and lofty opinion).

Methods: This research was done by comparing the contents of psychotherapeutic ancient clinical document with the western medical method of psychotherapy

Results :

1. Inquire into the clinical document, the psychotherapy is used treatment of wide area disease inclusive of neuropsychiatric disease different from the western medicine.
2. Inquire into the method of psychotherapy, the supportive psychotherapy and behavior therapy is applied.
3. In case of psychotherapy and treatment of medicines is done at the same time, treatment of medicines followed psychotherapy.
4. A viewpoint of Yusic(唯識-vijnaptim-atra)-a field of Buddhism, possibility of psychotherapy is showed.
5. A doctor's oriental thought and oriental medical Preservation of Health view was based.
6. The change of patient's the emotion and will is focused than disease itself.

Conclusion: When western medical method of psychotherapy is complemented by a oriental thought and oriental medical Preservation of Health view, the good effects is hoped in psychotherapy.

Key Word: psychotherapy, Giungoroen(wise saying and lofty opinion). the clinical document.

교신저자: 김근우, 경북 경주시 용강동 357번지 동국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신경정신과 (Tel.
054-770-1200, Fax. 054-770-1500)

I. 서론

최근 한국인의 思想的 源流를 東洋思想에서 찾

으려는 노력의 하나로, 정신치료에 있어서도 東洋思想을 바탕으로 서양정신의학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¹⁻³⁾.

東洋에서의 정신치료는 東洋思想인 儒佛仙에서 추구하는 人間觀과 韓醫學의 攝生을 바탕으로 하여, 질병 자체보다는 그 인간의 情緒나 意志를 改變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1,4)}. 또한 <靈樞·天年篇>⁵⁾에 '失神者死, 得神者生'라 하여 정신 자체를 생명현상으로 보아 '治神'이 韓醫學의 질병치료에 있어 優位임이 인정되어 정신을 치료하는 '治神'이 모든 치료의 근본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정신치료가 서양의학에서는 대부분 정신과적 질환에 국한되는 반면, 韓醫學에서는 모든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는 경향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三國史記·列傳篇>⁶⁾의 '祿眞'이 우울증 초기인 환자를 力動的인 진단에 입각한 단기 정신치료를 한 훌륭한 예를 볼 때, 과거 한국에서도 정신치료가 이루어졌으며, 祿眞이 醫師가 아닌 인물임을 보아 과거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심리적인 문제를 정신치료적 방법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祿眞이 치료를 시작할 때 '可以至言高論一政而破之也'라고 한 대목에서, '至言高論'의 사전적 의미가 '지극히 論理的이고 높은 識見'⁷⁾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치료자인 祿眞의 치료는 높은 지식수준을 이용해 논리적인 언어로 이루어진 정신치료라고 볼 수 있다.

韓醫學의 歷代 醫家들의 醫案에서도 '至言高論'을 이용해 정신치료를 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치료기법 또한 서양정신치료 못지않게 상당히 세련된 면을 볼 수 있다^{1,8,9)}.

이에 著者は 최근 서양 정신치료의 한계를 韓醫學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至言高論' 즉 환자에 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로 이루어진 정신치료의 예를, 歷代 各 醫家의 醫案을 정신·심리치료적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 약간의 知見을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歷代 各 醫家의 醫案 중 치료자가 환자에게 치료의 의미를 가지는 言語(至言高論)가 환자 증상의 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환자에게 심리적인 변화를 주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2. 연구 방법

各 醫案의 해석을 통하여 정신치료 및 상담에 의한 심리치료적 여러 技法을 各 醫案과 비교 연구 하였는데, 주로 明代에 專門으로 各家의 醫案만 收集한 책인 江瓘의 名醫類案과 清代 魏之琇의 續名醫類案, 俞震의 古今醫案, 醫部全錄의 醫案¹⁰⁾이 많이 연구되었다.

3. 醫案과 비교 연구된 정신·심리치료

1) 精神治療psychotherapy¹¹⁾

정신기능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고, 정서 및 행동의 장애와 인격의 문제점을 의사전달 수단을 통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1) 分析的 정신치료 psychoanalytic psychotherapy^{11,12)}

환자의 현재와의 갈등, 현재의 대인관계상의 역동적 패턴dynamic pattern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2) 支持精神治療supportive psychotherapy^{2,11,13)}

약해진 自我를 支持해 줌으로써 좀 더 생활의 문제에 부딪쳐서 견디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환자의 손상된 防禦機制와 통합능력을 회복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 근본을 이루는 것은 환자와 의사간의 관계rapport이다.

☞ 支持精神治療에 있어서의 治療技法¹¹⁻¹³⁾

① 保證(안심시킴)reassurance 의사의 권위와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면서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

② 換氣ventilation 남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문제를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기법. 이로서 불만

이 해소되거나 긴장이 풀리게 된다.

③ 除反應abreaction 무의식 속에 억압된 기억이나 감정을 터뜨려 표현해 버림으로써 누적된 스트레스나 긴장을 정화 또는 완화시키는 방법. 슬픈 감정, 공포감, 혐오감, 분노 및 적개심 등을 발산하게 한다.

④ 支持support 환자가 이야기를 의사가 수용적 태도로 잘 들어줌으로써 불안이나 갈등을 경감시켜 주고 적응능력이나 용기를 증가시켜 주는 것.

⑤ 說得persuasion 치료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환자의 이성과 의지 및 윤리도덕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요법. 한편 교육적인 면에서 설명도 해주어 그의 약화된 자아를 부추여 주어 증상을 개선시킨다. 강요보다는 치료자를 신뢰하게 하고 권유나 설명을 통하여 자기문제를 스스로 비판하고 자아를 강화함으로써 증세를 완화시킨다.

⑥ 暗示suggestion 겪고 있는 증상이 완화되거나 곧 나올 것이라고 암시해 줌으로써 치료효과를 얻는 요법.

2) 행동치료behavior therapy^{11,12)}

증상의 형성에 관계되어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을 학습이론에 따라 교정하여 증상의 해소 및 건설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 것.

☞ 행동치료에 있어 治療技法¹¹⁻¹²⁾

① 체계적 脫感作法systemic desensitization 환자로 하여금 불안, 공포 등 병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자극의 강도에 따라 약한 장면에서부터 심한 장면까지 여러 단계로 노출시키는 법이며, 이완훈련, 요가나 參禪도 해당된다.

② 행동수정기법(양성강화positive reinforcement) behavior modification techniques 재강화 reinforcement의 개념을 이용하여 원하는 행동을 만들어 내고, 또는 원치 않는 행동을 제지하거나 다른 건강한 행동이나 습관으로 대처하는 기법이다.

③ 혐오자극법aversion technique 병적인 행동을 보일 때 괴로운 자극을 가하여, 병적인 행동

의 감소를 도모하는 것.

④ 참여적 모형화participant modeling 환자가 닮음으로서 배우는 것으로, 환자가 자신이 두려워하는 행동을 남이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배워나간다.

2) 상담에 의한 심리치료적 기법¹⁴⁻¹⁵⁾

① 환경치료environmental manipulation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物理的 환경이나 心理的 환경을 적절한 適應을 期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변경 조정함을 뜻한다. 치료적 변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크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미묘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¹¹⁾.

② 직접치료direct treatment 환경치료에 대하여 직접 개인에게 영향을 주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법.

③ 忠告advice와 說得persuasion 치료자가 달성되어야 할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환자가 도달하도록 중재하고 충고한다.

④ 정화catharsis 자신의 문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숨김없이 말함으로써 심리적 개선효과를 얻는다.

⑤ 요구충족satisfying demands 환자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충족되어진다면 기분이 더 좋아질 것이다.

⑥ 요구포기giving up demandingness 환자의 요구를 최소로 줄이고 인내심을 최대한으로 기르도록 권하는 기술.

⑦ 해석interpretation 환자의 통찰을 유발하는 주된 기법으로, 환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현재 自覺수준을 약간 넘는 수준의 해석을 하여 치료적 효과를 나타낸다.

III. 본론

1. 지지정신치료에 해당하는 醫案

1) 攝生에 대한 '至言高論'으로 한 설득과 충고가 정신치료의 주도적 기법으로 활용된 醫案.

(1) <清代名醫醫案精華>¹⁷⁾

七情抑鬱, 思慮傷脾, 心營耗散, 氣鬱不舒, 以致不寐, 膽怯驚疑不定, 肝木作脹, 時時噦氣, 脈形弦細, 此癩症之機. 能舒懷抱, 戒煩惱, 服藥方許奏效. 用加味歸脾法.

七情이鬱滯되어 思慮가 脾를 傷하면 마음속의 영혼이 흩어져 氣機가 舒暢하지 못하여 不寐가 온다. 心膽虛怯하고 놀란 것이 혼란해 肝木이 팽창해 가끔 새소리를 낸다. 脈은 弦細하니 이것은 癩症의 기운이 있으니 능히 마음속에 품은 고민을 풀고 煩惱를 조심하고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니 加味歸脾湯을 쓴다.

☞ '舒懷抱, 戒煩惱'의 '至言高論'으로 불교적 내용의 설득 및 충고가 치료로 사용된 醫案. 부수적으로 歸脾湯類의 약물치료도 並行하였다.

(2) <名醫類案, 鼓脹>¹⁸⁾

一婦, 身中材頗肥, 脈緩弱無力. 俱病鼓脹, 大如箕, 垂如囊, 立則垂墮, 遮攔兩腿, 有碍步履. 汪視之曰; 腹皮寬縫已定, 非藥可斂也. 惟宜安心寡欲, 以保命耳.

한 여성이 있는데 몸은 다소 비만하고 脈緩弱無力한데 鼓脹의 증상을 갖추었는데, 크기가 키(곡식)를 까부는데 쓰이는 농기구)와 같고 주머니처럼 늘어져 일어서면 아래로 처져 양 허벅지를 가리는데 걷는데 장애가 있을 정도다. 汪石山이 진찰하고 말하기를 '뱃가죽이 어느 정도 늘어졌으니 이것은 약으로 줄일 수 없다. 오직 마음을 편안히 하고 욕심을 버려서 목숨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 '安心寡欲'으로 요약되는 설득 및 충고가 치료로 사용된 醫案

(3) <名醫類案, 胃痛>¹⁸⁾

羅謙甫治, 二十五歲青年, 體豐肥, 舉養膏粱, 曾因過食寒冷而胃脘當心而作痛. 後因 勞役煩惱, 前症大作. 診之手足稍冷, 面色青黃而不澤, 情思不樂, 惡煩冗, 食少, 疼時發作, 伴有冷汗出, 脈弦細而微. 羅氏制扶陽助胃湯, 并用灸法, 囑其 '戒以懲忿窒欲, 慎言節食', 多管齊下, 身心病治, 後平復未發.

羅謙甫가 체격이 뚱뚱하고 건실한 25세의 청년을 치료했는데, 평소 膏粱珍味를 즐겨하는데, 일찍이 찬 음식을 많이 먹어 胃脘部의 통증이 있었다. 나중에 다시 일과 정신적 과로로 지난번의 병이 생겼다. 진찰한 바 손발이 조금 차고 안색이 靑黃하며 광택이 없고, 기분이 좋지 않고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식사를 잘하지 못하고, 胃脘痛이 있을 때 식은땀을 동반하며 脈은 弦細하고 약하다. 羅謙甫는 扶陽助胃湯을 쓰고 겸하여 灸法을 쓰고 당부하기를 '분노와 욕망을 억제하고 말하는 것과 먹는 것을 삼가 하라' 이러한 것을 잘 지키니 心身의 병이 치료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다.

☞ 胃痛은 '勞役煩惱'하여 생기는데 치료 시 情志의 조절을 중요시하는바, '戒以懲忿窒欲, 慎言節食'의 설득 및 충고가 치료로 사용된 醫案. 정신치료와 함께 약물치료와 灸法을 並行하였다.

(4) <續名醫類案, 遺精>¹⁹⁾

龔子才治秀才陳桂材, 患夜夢遺精, 每月一二次, 或三五次, 遺後精神昏沈, 身體困倦, 診之, 六脈微澁無力, 此陰虛火動之症, 辰砂既濟丸加紫河車, 龍骨, 腹之數月奏效. 奈數患不能謹守, 故口占俚語一章以戒之. 曰; 培養精神貴節房, 更祛塵慮要周防. 食惟半飽宜清淡, 酒止三分勿過傷. 藥餌隨時應勸進, 功名有分不須忙. 幾行俚語君能味, 便是長生不老方.

龔子才가 뛰어난 재주로서 陳桂材의 병인 夢遺精을 치료하는데, 매일 1-2차례 혹은 3-5차례 하는데 遺精 후에는 정신이 昏蒙하고 몸이 피곤하다. 診脈을 한바 六脈이 모두 微澁無力하여 陰虛火動으로 결정을 내려 辰砂既濟丸加味를 수개월 써서 효과를 냈으나, 어찌하여 몇 가지는 환자로

서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말하여 훈계하기를 '정신을 배양하고 방사를 절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시 속된 생각들을 개선하여 버리기를 반드시 두루 하라. 식사는 적당히 하고 반드시 淡白한 것을 먹을 것을 도모하며, 술은 三分이 넘지 않고 과하게 먹지 말 것이다. 약은 시간을 지켜서 성실히 먹고 功名은 정도가 있으니 너무 바쁘게 쫓지 않는 바, 이러한 戒律을 지키면 능히 입맛이 나니, 늙지 않고 장수하는 방법이다.'라 했다.

☞ 이는 단순한 用藥(辰砂既濟丸)으로는 '終不斷根' 즉 병의 근본을 치료 할 수 없으니 '節房', '祛塵慮' 즉 房事나 過食 및 煩雜한 思考를 조절하여 병의 진행을 막으니, 調養이나 節欲은 본병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고 用藥은 이를 따라가는 경우이다²⁰⁾. '培養精神貴節房.....幾行俚語君能味' 즉 전체적인 攝生이 설득 및 충고의 기법으로 사용된 醫案.

(5) <名醫類案, 癲狂心疾>¹⁸⁾

鄭子元由翰林補外十餘年矣, 不得賜還, 嘗侘傺無聊, 遂成心疾. 每疾作, 輒昏曠如夢, 或發譫語, 有時不作, 無導平時. 或曰; 眞空寺有老僧, 不用符藥, 能治心疾. 往叩之, 老僧曰; 相公貴恙, 起於煩惱, 生於妄想. 夫妄想之來.....

鄭子元이 學文을 말아보던 관청에서 일을 그만둔지 十餘年이 지나 찾아오는 이도 없어 失意에 빠져 적적하게 보내던 중 마음의 병이 생겼다. 病症이 나타날 때마다 문득 귀가 멍한 것이 꿈을 꾸는 것 같고 혹은 譫語를 하는데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으나 평상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眞空寺에 노승이 있는데 약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고 하여 가서 물으니 그 노승이 말하기를 '병자의 근심은 煩惱에서 일어나서 妄想에서 생겼다.....

☞ 脫營·失精하여 생긴 병으로 '起於煩惱, 生於妄想'의 불교적인 내용의 '至言高論'으로 설득 및 충고를 하여 치료한 醫案.

(6) <儒門事親 卷六 熱形 因藥燥熱四十五>²¹⁾

高燦巡檢之子八歲, 病熱, 醫者皆爲傷冷治之, 以熱藥攻矣. 欲飲水, 水禁而不與. 內水涸竭, 煩燥轉生, 前後皆閉, 口鼻俱乾, 寒熱往來, 嗽咳時作, 遍身無汗. 又欲灸之, 適遇戴人. 戴人責其母曰; 重襦厚被, 煖炕紅爐, 兒已不勝其熱矣, 尙可灸乎! 其母謝以不明. 戴人令先服人蔘柴胡飲子.....

巡檢이라는 벼슬을 가진 高燦의 8살 난 자식의 發熱病으로 의사들 모두가 冷에 상한 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熱藥으로써 치료하였다. 아이가 물을 먹으려고 하였으나 물을 금하고 주지 않아 아이의 몸 내부의 물이 고갈되고 煩燥가 생기게 되었고, 대소변이 모두 막혀 口鼻가 모두 건조해지고 寒熱往來, 때때로 咳嗽를 하고, 온몸에 땀이 없었다. 또 뜸을 뜨려고 하였는데, 이때 戴人을 만났다. 戴人이 말하길, '아이에게 속옷을 겹겹이 입히고 두터운 옷을 입힌 것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화로를 달구는 것과 같으니, 아이가 이미 그 열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뜸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하고 아이의 어머니를 책망하니 그 부모가 감사히 여겼다. 對人은 먼저 人蔘柴胡飲子를 연이어 수 차례 복용시키고

☞ 잘못된 치료에 대한 설득과 충고가 사용되었으며, 人蔘柴胡飲子라는 약물치료가 병행되어 사용됨

(7) <外科正宗>²²⁾

一室女年十七, 因父擇婿不遂, 耽至二旬, 懷抱日久, 項生數核, 堅硬如石, 此肝經凝結筋縮之病也. 又兼經水斷絕, 寒熱如瘧, 咳嗽脈數, 惟不顴紅, 此陰虛火動, 已成勞瘵症也. 非藥能愈, 視其形狀, 喜無敗色. 予曰; 欲治此病, 善治其心猶可. 夫問曰; 何藥治心? 予曰; 非藥也. <易>云; 天地氤氳, 萬物化醇, 男女媾精, 萬物化生, 此天地男女生成化育之道也. 斯病獨起於孤陰, 寡陽不生不化, 所謂逆理之病.....夫婦和而家道成. 斯時之後, 用藥方可. 彼父始悟, 隨即擇嫁, 三月後, 復請視之, 前症稍定, 先用逍遙散加.....

17세 된 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사위를 정하고는 혼인을 시키지 않는 것이다. 20일

동안 마음에 품은 것이 날이 지나면서 병이 되어, 목덜미에 돌과 같은 癩癘이 생기니 이것은 肝氣鬱結해서 근육이 굳은 것이다. 또 經閉, 寒熱 往來如瘧, 咳嗽, 脈數, 顴紅하니 이것은 陰虛火動해서 이미 勞瘵가 생긴 것이다. 이것은 약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형상을 보니 손상된 기색이 없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 병을 치료하려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가능하다.' 그 아버지가 '약으로 마음을 치료합니까?'하고 묻자 말하기를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周易에 말하기를 天地의 기운이 盛하면 만물이 生育하고 男女가 情을 통하면 만물이 化生하니 이것은 天地男女의 道이다. 이병은 홀로 陰만이 있으니 陽이 부족해서 生하지 못하니 理致를 거스려서 생기는 병이다.....결혼을 해서 가정의 도를 이루고 기다려 약을 씌우 가능하다.' 그 아버지가 깨닫기 시작하고는 즉시 혼인을 시켰으며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보게 하니 그 전의 증상이 줄어들어 먼저 逍遙散加味를 쓰고.....

☞ 周易의 내용이 '至言高論'이 되며 이를 근거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치료에 대한 암시를 주었으며 혼인을 시켜 요구를 충족시킨 醫案.

(8)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第十二冊, 醫術名流列傳, 虞洸>²³⁾

虞少卿洸, 蜀之醫也. 長興祖初佐蜀, 董大尉璋久患渴疾, 遺押衙李彥求醫孟蜀, 祖遣虞少卿往, 虞少卿既至, 董公曰. '璋之所患, 經百名醫而無微瘥者, 何也? 虞少卿對曰, '君之疾, 非唯渴漿, 而似渴土, 得其多土, 不勞藥石而自愈矣.' 董公大悅. 時董公有南面之志, 虞少卿故以此言讖之. 又曰 '洸聞天有六氣, 降爲六淫, 淫生六疾.....君今日有萬思, 時有萬機, 樂淫於外, 女淫於內, 渴之難療, 其由此乎?'

虞少卿洸은 촉나라의 의사였는데, 長興祖는 초기에 촉나라를 보좌하였는데, 여기의 董璋이라 높은 관리가 마르는 질병을 앓게 되었다. 이리하여 관청에 의뢰하여 촉나라에 의사를 부탁하였는데, 虞少卿에 그 부탁이 와서 虞少卿이 가니, 董璋이 말하기를 '나의 병은 많은 名醫들이 보았으나 조금의 차도도 없었다. 어찌하여 이러하냐?', 虞少卿 대답하여 말하기를 '君主의 병은 일반인

의 병과는 달리 君主로서의 일을 많이 하여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약과 침의 치료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董璋이 크게 기뻐하였다. 당시 璋은 君主로서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으며 虞少卿은 이를 나무라며 말하였다. '제가 알기로는 하늘에는 六氣가 있고 내려와서는 六淫이 되고, 六淫에서 六疾이 생기는데.....지금의 君主는 날마다 생각할 것이 많고, 가꿈 많은 일이 생기고, 밖에서는 향락을 즐기고, 안으로는 女色을 밝히니 마르는 병이 잘 낫지 않는 것이니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 君主의 過勞病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함께 '洸聞天有六氣.....渴之難療, 其由此乎?'라 하며 韓醫學的 病理에 의거한 攝生을 '至言高論'으로 하여 환자를 설득 및 충고한 醫案.

(9) <三國史記 列傳 第五 祿眞>⁶⁾

祿眞性與字未詳.....時忠恭角干爲上大等, 坐政事堂, 注擬內外官, 退公感疾, 召國醫, 診脈, 曰病在心臟, 須服龍齒湯, 遂告暇三七日, 杜門不見.....於是引見, 祿眞進曰, 伏聞寶體不調, 得非是早朝晚罷, 蒙犯風露以傷榮衛之和, 失支體之安乎, 曰, 未至是也, 但昏昏嘿嘿 精神不快耳 然則公之病, 不須藥石, 不須鍼砭, 可以至言高論一政而破之也, 公將聞之乎, 吾子不我遐遺, 惠然光臨. 願聽玉音, 洗我胸臆, 祿眞曰, 彼梓人之爲室也, 材大者爲梁柱, 小者爲椽椳, 偃者, 植者各安所旋, 然後大廈成焉, 古者賢宰相之爲政也.....又何必區區於服餌之間, 徒自費日廢事爲哉.....

祿眞의 성과 이름은 미상이다.....이때 角干忠恭은 上大等으로 되어 政事當에 앉아 內外官과 함께 政事를 의논하였는데, 公이 병이 들어 國醫를 불러 診脈을 하니 醫師는 말하기를 '병이 心臟에 있으니 오로지 龍齒湯을 먹어야 한다.'고 하여 三七日의 휴가를 알리고 나와 杜門不出하니.....祿眞은 公을 보고 말하기를 '귀한 몸이 편치 않다고 들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사를 마치지 않고 일을 하였으므로 바람과 이슬의 기운(邪氣)에 의하여 榮衛가 調和를 잃어서 몸의 안정을 잃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公이 말하기를 '단지 어지럽

고 답답하여 정신이 상쾌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하자 祿眞은 말하기를 '그러면 公의 병은 藥과 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至言高論으로 고쳐야 하니 公은 나의 말을 들겠습니까?'라고 하자 公은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멀리 버리지 아니하고 은혜와 광명을 주려고 하니 좋은 말을 하여서 가슴속의 답답한 생각을 씻어주기를 바랍니다.'고 하자 祿眞은 말하기를 '목수가 집을 지을 때 그 재목의 큰 것은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고, 작은 것은 연목으로 쓰고. 눅힐 것은 눅히고, 세울 것은 세우는 등 각각 그 자리에 알맞게 쓴 연후에야 비로소 큰집을 짓는데, 이는 옛날 어진 재상들의 정치하는 원리와 무엇이 다르리오.....하필이면 구구히 약을 먹으며 헛되어 날을 허비하며 정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 설득 충고 및 암시가 치료기법으로 사용됨

2) 암시가 정신치료의 주된 기법으로 활용된 醫案.

(10)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第十二冊, 李明甫>²³⁾

李明甫, 東陽人, 善醫, 尤精鍼法. 義烏令病心痛垂死, 明甫視之曰; 有蟲在肺下, 藥所不及, 有砭乃可, 然非易也. 給謂於背上点穴, 密取水而噴之. 令方驚而鍼已入, 曰; 蟲已死矣. 卽而腹大痛, 下黑水數升, 蟲亦去, 遂愈.

李明甫는 東陽사람으로서 훌륭한 의사인데 특히 鍼法에 능력이 있었다. 義烏令이라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心痛이 심해 곧 죽을 것 같았다. 李明甫가 보고는 말하기를 '肺下에 벌레가 있어 약은 닿지 않으니 침으로서 가히 도달할 수 있는데 쉽지가 않다'라고 말하고 거짓으로 등위에 하나의 鍼穴을 정하여 비밀로 물을 뿌었다. 그리고 막 놀랄 때 刺鍼을 하며 말하기를 '벌레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자 배가 크게 아프며 검은 물을 많이 泄瀉하며 벌레가 빠지고 병이 나왔다.

☞ '蟲已死矣'라 말하며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암시와 거짓으로 안심시켜(보증) 치료한 醫案

(11) <名醫類案, 鬱>¹⁸⁾

孫景祥治李長沙學士, 年三十九, 時患脾病.....醫

咸謂瘵也, 以藥補之, 病彌劇. 時歲暮, 醫曰; 吾技窮矣, 若春木旺, 則脾必傷重. 會孫來視, 曰; 及春而解. 因怪問之. 孫曰; 病在心火, 故得木而解, 彼謂脾病者, 不揣其本故也. 公得非有憂鬱之事乎? 曰; 噫, 是也. 蓋是時喪妻亡弟, 悲愴過傷, 積久成病, 非惟醫莫之識, 而自亦忘之矣. 於是盡棄舊藥, 忽聽孫言.....

孫景祥이 39세 된 長沙의 李선생을 치료한 바 현재 脾病을 앓고 있는데.....醫師가 勞瘵病이라고 두루 설명하고, 약으로서 補를 하니 심한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때 의사는 '나의 치료는 다 하였으며 만약 봄이 깊어지면 脾가 다시 깊이 상할 것이다.'라고 했다. 마침 孫景祥이 와서 보고는 말하기를; '봄이 되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자 이상해서 이유를 묻자 말하기를 '병은 心火에 있는 고로 木을 얻으면, 즉 봄이 되면 나을 것인데 그 의사가 脾病이라고 한 것은 그 근본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다, 혹시 당신은 슬퍼할 일이 없었는가?'라고 하자, 환자는 말하기를 '아하 그러하다. 그 당시 喪妻하고 동생을 잃어서 많이 슬퍼하였고 슬퍼한 정도가 심하고 쌓여서 병이 생겼다. 이것을 의사도 알지 못한 뿐만 아니라 본인 또한 잊고 있었다.'하며, 옛날 약을 버리고 孫景祥의 말에 따르며.....

☞ 병을 脾病(土病)으로 誤診을 하여 '若春木旺' 즉 '木剋土' 봄에 병의 진행을 잘 못 예측한 것을 孫景祥은 병을 心火의 병 즉 情志病으로 진단하고 '木生火'의 五行이론에 의거해 '及春而解'라 하여 치료에 대해 암시하고 '噫, 是也.....而自亦忘之矣.'라 하며 病識에 대한 洞察insight가 생겼다. 환기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景岳全書, 詐病>²⁴⁾

一姻戚士者, 爲宦家所毆, 遂臥病旬日, 吐血盈盆. 因喧傳人命, 連及多人. 延醫數輩, 見其危極之狀者, 皆束手遠避, 防爲所累也. 最後予往視之, 察其色則絕無窘苦之意, 診其脈則總皆和緩如常. 予始疑之, 而繼則悟之. 因潛語之曰; '他可欺也, 予亦可欺也. 此爾之血也, 抑家禽之血耶.' 其人愕然, 洗予無言, 遂爲調和而相銜感而散

妻家 선비 한 사람이 벼슬아치의 집에서 맞아서 바로 병상에 누워 수십일 동안 피를 한 동이가득 차게 쏟아 목숨이 위태로운 것같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수많은 의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멀리 피하고 방법은 묶어 놓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마지막에 가서 보니, 아주 고생할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脈診을 한 즉 和緩한 것이 정상이었다. 비로소 의심하기 시작하고 잠잠히 깨닫고 병자에게 속삭여서 말하기를 '네가 거짓 행동을 한다면 나도 거짓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너의 피냐? 짐승의 피를 치워라'라고 말하자 그 병자는 놀라고 폐를 끼친 것에 대하여 말이 없는 것이다. 이후 건강과 감정을 되찾아 이내 좋아졌다.

☞ 詐病에 대해, 醫師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他可欺也, 予亦可欺也. 此爾之血也, 抑家禽之血耶.'라 하며 이것이 거짓 병임을 알려 창피하게 하고 또한, 그 환자의 2차적 이득(second gain)을 포기하게 하였다. 즉 詐病에 대해 가벼운 병임을 알려서 치료에 대한 암시를 주고 요구포기를 이용해 치료한 醫案.

(13) <古今醫案按, 諸蟲>²⁵⁾

一人在姻家過飲醉甚, 送宿花軒, 夜半酒渴, 欲水不得, 遂口吸石槽中水碗許. 天明視之, 槽中俱是小紅蟲, 心陡然而驚, 鬱鬱不散, 心中如有蛆物, 胃脘便覺閉塞, 日想月疑, 漸成癆膈, 遍醫不愈. 吳球往視之, 知其病生於疑也. 用結線紅色者, 分開剪斷如蛆狀. 用巴豆二粒, 同飯搗爛, 入紅線, 丸十數丸. 令病人暗室內服之. 又於宿盆內放水, 須臾欲瀉, 令病人坐盆, 瀉出前物, 湯漾如蛆, 然後開窗令親視之, 其病從此解, 調理半月而愈.

한 사람이 妻家집에서 過飲을 하고 취해서 꽃처마 아래서 하루를 보내는데, 한밤중에 술로 인한 갈증으로 물을 구했으나 구하지 못하고, 말구유 속의 물을 한 사발 마셨다. 날이 밝아 보니 구유통 속이 온통 작고 붉은 벌레들이 있어 갑자기 놀라고, 기분이 짹짹한 것이 풀리지 않고 생각이 온통 구더기 같은 벌레들로 가득 차 胃脘部가 문득 막힌 것을 느끼고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

과 의심만 더해지더니 증상이 심해져 '癆膈'이 되고 의사들을 두루 만났으나 치료되지 않았다. 吳球가 가서 보고는 그 병이 의심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 붉은색 실을 이어서 가위로 끊어 각각 나누어 구더기와 같은 형태를 만들고 巴豆 두 알을 같이 찢어 붉은색 실에 넣고 환을 10개 만들었다. 환자로 하여금 어두운 방에 가서 먹게 하였다. 다시 집안의 그릇에 물을 넣고 기다리고 있다가 泄瀉가 나오려 할 때 환자가 그 그릇에 앉게 하고 붉은 실이 설사로 해서 나오며 그 모양이 구더기가 출렁거리는 것과 같으니, 연후에 동이 뚜껑을 열고 직접 보게 하니 그 병이 이에 따라 풀려갔다. '보름간 조리하고 병이 나았다.'

☞ 醫案(13)과 類似한 詐病에 대한 심리치료인데, 몸 속에 있는 벌레에 대한 의심이 풀리면서 치료에 대한 암시효과가 나타난 醫案. 이런 경우는,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암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한 行爲指導가 '至言高論'이라고 볼 수 있다.

(14) <古今醫案按, 憂>²⁵⁾

徐書記有室女, 病似勞, 醫僧法靖診曰; 二寸脈微伏, 是憂思致病. 請示病因 徐曰; 女子夢吞蛇, 漸成此病. 靖謂有蛇在腹, 用藥專下小蛇, 其疾遂愈. 靖密言非蛇病也, 因夢蛇過憂成疾, 當治意而不治病耳.

徐書記라는 사람의 집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勞瘵病과 비슷한 병에 걸렸는데, 法靖이라는 스님이 진찰하고 말하기를 '양쪽 寸脈이 微伏하니 이것은 걱정하고 생각이 많아서 생긴 것이다.' 法靖이 이유를 청하여 묻자 徐書記가 말하기를 '그녀가 뱀을 삼키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진행하여 병이 되었다.' 法靖은 말하기를 '실제 배속에 뱀이 있으니 약을 써서 작은 뱀을 아래로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비밀스럽게 말하기를 '이것은 뱀으로 인한 병이 아니다. 뱀 꿈을 꾸어서 근심이 생겨서 생긴 병이니 치료도 당연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

☞ '有蛇在腹, 用藥專下小蛇, 其疾遂愈.' 환자의

꿈에서 나타난 뱀에 대한 공포감과 혐오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긴장을 완화시키는 제반응과 약으로서 뱀을 없애준다는 일종의 암시적 기법이 사용된 醫案이다.

(15) <續名醫類案, 邪祟>¹⁹⁾

顧歡隱於會稽, 素有道, 有病風邪者, 而問歡, 歡曰. '君家有書乎?' 曰. '惟有孝經而已.' 歡曰. '可取仲尼居, 置病人枕邊, 恭敬之, 當自瘥.' 如言果愈. 問其故, 曰. '善禳惡, 正勝邪, 此病者所以瘥也.'

歡隱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평소 道를 공부하는 사람이 風邪에 傷한 병이 걸려서 歡에게 물었다. 歡이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 라고 묻자 孝經을 가지고 있다'라 하자 歡은 말하기를 '그 책을 비구승이 사는 곳에 두었다가 병자의 베게 주변에 두고 공경하면 병이 자연히 나올 것이오'라고 했다. 과연 병이 나왔다. 그 이유를 묻자 '좋은 惡을 몰리치고, 正氣는 邪氣를 이기는 것은 病者가 나온 이유이다.'

☞ '可取仲尼居, 置病人枕邊, 恭敬之, 當自瘥.' 즉 책을 매개체로 치료에의 암시를 준 醫案.

3) 기타 치료기법이 주로 응용된 醫案

(16) <續名醫類案, 鬱證>¹⁹⁾

一女與母相愛, 卽嫁, 母喪, 女因思母成疾. 精神短少, 倦怠嗜臥, 胸膈煩悶, 日常慙慙, 藥不應. 予視之曰. 此病自思, 非藥可愈. 彼俗酷信女巫, 巫托降神言禍福, 謂之卜童. 因令其夫假託賄囑之, 托母言女與我前世有冤, 汝故托生於我, 一以害我, 是以汝之生命剋我, 我死皆汝之故. 今在陰司, 欲報汝仇, 汝病慙慙, 實我所爲, 生則爲母子, 死則爲寇仇. 夫乃語其婦曰. 汝病若此, 我他往, 可請巫婦卜之何如? 婦諾之. 遂請卜, 一如夫所言. 女聞大怒, 詬曰. 我因母病, 母反害我, 我何思之? 遂不思, 病果愈, 此以怒勝思也.

한 여인이 어머니와 서로 사이 좋게 지내다가 시집을 가자 어머니가 죽었다. 그 여인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병이 들었다. 精神短少, 倦怠

嗜臥, 胸膈煩悶의 증상을 항상 앓으며 약이 듣지를 앓았다. 나는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 병은 故人을 생각하여 생긴 병이니 약으로서 치료할 수가 없다. 그 여인은 무당을 믿는 풍속을 잘 믿으니 무당으로 하여금 신을 내리게 하고 그 점을 말하게 하고 그 점으로서 그녀의 어리석음을 말하게 하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무당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을 부탁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어머니가 말하기를 전생에 딸과는 원한이 있어 내가 죽은 것이 모두 그녀의 탓인데, 몰래 그 원수를 갚기를 바라는데 내가 앓는 것은 사실은 나의 짓이니 내가 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고 죽으면 원수의 관계이다'라고 말하게 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그 여인의 병은 이러한 연고로 생긴 것이니 나와 같이 가서 무당에게 점을 청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말하자 그녀는 점 받기를 따르고 무당이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하자 그 여인은 '나의 병은 어머니로 하여금 생긴 것이며 어머니가 나를 해한 것이니 어떻게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곧 어머니를 생각지 않자 병이 나은 것이니 이는 '怒勝喜'이다.

☞ '我因母病, 母反害我, 我何思之?' 상반된 감정을 이용, 즉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분노 적개심으로 변함. 無意識 속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여 제반응을 유도하여 치료한 醫案으로서 '此病自思.....謂之卜童.'이 '至言高論'으로 이용된 경우.

(17) <丹溪心法心要, 咳血>²⁶⁾

一人因憂患病咳吐血, 面黎黑色, 藥之十日不效, 謂其兄陳狀元曰; 此病得之失志而傷腎, 必用喜藥乃可愈. 卽救一足衣食地處之. 於是大喜, 卽時色退, 不藥而愈, 所以言治病必救基本.....

우울한 병으로 피를 토하는 환자가 있는데, 얼굴이 검은 색이고 약으로 10일 치료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 형 陳狀元이 '이 병은 뜻을 이루지 못해 腎이 상해서 온 것이니 기쁨이 약이 되어야만 치료할 수 있다.'라 하며 즉시 버선을 하나 구해와서 땅에서 먹는 시늉을 하니 환자가 크게 기뻐하며 얼굴색이 돌아왔다. 이것은 병의 치료에

있어 근본을 다스린 것을 말하고 있다.....

☞ ‘於是大喜’ 즉 환자의 긴장해소를 유도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일종의 환기법이 응용됨.

(18) <名醫類案, 癲狂>¹⁸⁾

王中陽治一婦, 疑其夫有外好, 因病失心, 狂惑晝夜, 言語相續不絕. 舉家圍繞, 促拿不定, 王投滾痰丸八十丸, 即便佯睡, 是夜不語. 次夜, 再進一服, 前後兩次, 遂下惡物, 患人覺知差舛, 遂飲食起坐如常, 五七日能針指, 終是意不快. 王慮其復作, 陰令一人於其前, 對旁人曰; 可憐某婦中暑暴死. 患者忻然. 問曰; 汝何以知之? 說者曰; 我適見其夫備後事也. 患者有喜色, 由是遂痊.

王中陽이 한 부인을 치료하는데 그 지아비가 外道하는 것을 의심하여 心에 병이 생겼다. 밤낮으로 미쳐서 날뛰며 말을 계속하여 온 집안 사람들이 노력했으나 잘 치료되지 않아 王中陽이 滾痰丸을 80알 주자 거짓으로 잠을 자며 밤에 말을 하지 않고 다음날 밤 다시 한번 먹이니 두 번에 걸쳐 나쁜 것을 쏟아 냈다. 환자는 나은 것을 알고 얼굴을 붉히고 먹는 것과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五七일에 능히 바느질을 할 수 있었으나 마음은 기쁘지 않았다. 王中陽은 다시 재발할 것을 염려하여 몰래 한 시람으로 하여금 환자의 옆에 가서 말하게 하기를 ‘그 여자(남편과 外道를 한 여인)가 中暑로 갑자기 죽어서 불쌍하다’고 하자 病者는 기뻐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고 묻자 ‘마침 그 남편이 뒷일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하였다. 病者는 기뻐하며 병이 낫게 되었다.

☞ ‘可憐某婦中暑暴死.’라고 거짓을 말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患者忻然.’ 즉 신경증을 일으킨 상황을 거짓으로 경험하게 해서 치료한 醫案으로서 제반응을 이용하여 정화를 유도하여 치료했다. 標治는 약물치료로 하고 本治는 정신치료를 한 醫案²⁰⁾.

(19) <幼科發揮, 客件似癩>²⁷⁾

一兒半歲, 忽日慘然不樂, 昏睡不乳, 予曰; ‘形色無病.....此兒莫非有所思, 思傷脾, 乃昏睡不乳也’.

其父母悟云; ‘有一小廝相伴者, 吾使他往, 今三日矣.’ 乳母亦云; ‘自小廝去後, 便不欣喜, 不吹乳’. 父急命呼之歸, 兒見其童嘻笑. 父曰; “非翁之妙術, 不能知也”.

6개월 된 아이가 종일토록 애처롭게 기뻐하지 않고 곤하게 잠만 자고 우유도 먹지 않는다. 萬全이 말하기를 ‘形色으로 봐서는 병이 없다.....이것은 오히려 思慮로 인한 것이며, 思慮過多는 脾를 傷하는 바 잠만 자고 우유를 먹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부모가 깨닫고 말하기를 ‘같이 놀아주는 한 어린 하인이 있었는데, 내가 그를 보낸 지가 3일이 지났다.’라고 하고 그 乳母도 말하기를 ‘그 어린 하인이 간 후 자주 기뻐하지 않고 우유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부모가 그 어린 하인을 돌아오게 하여 어린 아이를 보게 하자 기쁘게 웃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묘한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 어린하인을 이용한 환경치료를 통해 요구충족과 정화를 유도한 醫案.

2. 행동치료에 관계된 醫案

1) 체계적 脫滅作에 해당되는 행동치료 醫案

(20) <續名醫類案, 奇疾>¹⁹⁾

邱汝誠治一女子, 欠伸臂不下. 邱命其母裸女上身, 以單裙著之. 曰. ‘俟吾搗籬即去下裳.’ 母如命, 邱揚聲而入, 女羞縮臂, 即復故.

邱汝誠이 한 여인을 치료하는데, 하품하며 지지개를 펴다가 팔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邱汝誠이 그 어머니에게 그녀의 상체를 벗기고 아래에 하나의 치마를 입게 하고 말하기를 ‘내가 발을 걷기를 기다렸다가 치마를 벗기시오’라 하였다.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따르고 邱汝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들어가자 그 여인은 부끄러워하며 팔을 바르게 하였으며, 즉시 팔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 통증에 대한 체계적 탈감작이 이용된 醫案. 醫師의 指示사항이 ‘至言高論’에 해당

(21)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第十二冊, 醫術名流列傳, 俞用古>²³⁾

一女子欠伸, 兩手直不能下, 用古曰; 須灸丹田, 因灼艾詐解其裙帶, 女子驚護之, 兩手遂下.

한 여인이 하품을 하다가 양손이 바로 아래로 내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俞用古가 말하기를 '잠깐 丹田에 뜬을 떠서 쑥으로 그 치마끈을 거것으로 풀어 해치면 놀라서 양손을 바로 내릴 것이다'라고 했다.

☞ 통증에 대한 체계적 탈감작이 이용된 醫案.

(22)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第十二冊, 醫術名流列傳, 徐述>²³⁾

一孕婦仰而探物, 遂不能俯, 迪令之衣以裙數十層, 掖之衆中, 以漸而解, 每解一裙, 輒擲婦前, 解之中牖, 其婦不覺用手力護, 因得俯.

한 임신부가 몸을 펴고 물건을 찾다가 몸을 구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徐述이 이르기를 '옷을 여러 겹 입히고 겨드랑이를 끼고 사람들 사이에 데리고 가서 하나씩 벗기되 매번 벗길 때 갑자기 그녀 앞에 던지다가 중간쯤 해서는 뚱뚱에 던져, 그 부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써서 잡으려다가 급혀지는 것이다.'고 했다.

☞ 통증에 대한 체계적 탈감작이 이용된 醫案.

2) 행동수정요법에 해당되는 행동치료가 응용된 醫案

(23)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第十二冊, 醫術名流列傳, 蔣曉>²³⁾

有王生者, 子方週, 忽不乳食, 肌肉盡削, 醫以爲疳, 曉曰; 此相思症也. 衆皆嗤笑之. 曉令取平時玩弄之物, 悉陳於前, 有小木魚, 兒一見喜笑, 疾遂已.

方週라는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우유를 먹지 않고 살이 빠졌다. 의사들은 '疳病'이라고 하였으나 蔣曉는 相思病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비웃었다. 蔣曉는 평소 아이가 가지고 놀던 물건들을 가져오게 해서 모두 아이 앞에 늘어놓게 하니, 아이는 자기 앞에 있는 나무고기를 가지고 웃으며 좋아하고 병이 나왔다

☞ 小木魚를 이용한 요구충족과 원하는 행동을 유도한 행동수정기법이 이용된 醫案

(24) <儒門事親, 卷三, 九氣感疾更相爲治衍二十六>²¹⁾

山東楊先生, 治府主洞泄不已. 楊初未對, 病人與衆人, 談日月星辰躔席, 及風雲雷雨之變, 自辰至未, 而病者聽之而忘其圍. 楊嘗曰; 治洞泄不已之人, 先問其所好之事. 好碁者, 與之碁; 好樂者, 與之笙笛, 勿輟.

옛날에 山東의 楊선생이 府主가 설사가 그치지 않는 것을 치료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楊선생이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환자와 여러 사람이 같이 日月星辰의 天體運行度數와 風雲雷雨의 변화를 辰時에서 未時까지 이야기하였는데, 환자는 이에 몰두하여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잊었다. 楊씨는 일찍이 말하기를 洞泄이 그치지 않은 사람은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물어보아야 한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을 두어주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와 더불어 생(笙)과 적(笛)을 계속 불어 주었다.

즉 이는 山東楊선생이 환자가 洞泄이 그치지 않아서 생기는 憂慮와 恐怖의 심리를 환자의 嗜好物로서 바꿈으로서 환자의 우울한 기분을 해소시킴으로서 병을 치료했다²⁰⁾.

☞ 원하는 행위를 통한 요구충족 및 행동수정 기법이 사용된 醫案.

3) 기타 행동치료

(25) <儒門事親 卷七 內傷形 病怒不食一百一>²¹⁾

項關令之妻, 病食不欲食. 常好呼呌怒罵, 欲殺左右, 惡言不輟. 衆醫皆處藥, 幾半載尙爾. 其夫命戴人視之, 戴人曰; 此難以藥治, 乃使二媼各塗丹粉, 作伶人狀, 其婦大笑. 次日, 又令作角觝, 又大笑. 其旁常以兩箇能食之婦, 誇其食美, 其婦亦索其食, 而爲一嘗之. 不數日, 怒減食增, 不藥而瘥.....

項關縣에 사는 승의 부인이 火病으로 먹지를 앓았다. 항시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소리치기를 좋아하였으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 하고, 나쁜 말을 그치지 않았다. 여러 의사들이 처방을 했으나 거의 반년이 되어도 여전히 앓았다. 남편이 戴人에게 명하여 부인을 보게 했는데, 戴人이 말하기를 약으로 치료하기는 어렵고, 2명의 기녀로 하여금 화장을 하게 하고, 희극 단원같이 분장하

여 부인을 크게 웃게 하였다. 다음날 또 머리 위에 뿔이 난 모양을 만들어 또 크게 웃게 하였다. 그 곁에는 2명의 밥을 잘 먹는 부인을 두었으니, 밥을 잘 먹는 것을 자랑하게 하니 그 부인 역시 밥을 찾아서 예전같이 되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분노는 감소하고 식욕은 증가되어 약이 아니 고도 낫게 되었다.....

☞ ‘其旁常以兩箇能食之婦 誇其食美’ 정상인의 모범적인 행동으로서 바람직한 것을 배우게 하는 참여적 모형화와 환자도 밥을 잘먹을 수 있다는 암시가 이용된 醫案. 戴人이 기녀에게 지시한 내용이 ‘至言高論’으로 이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26) <續名醫類案, 哭笑>¹⁹⁾

邱汝誠一女子, 恒笑不止. 求診, 問生平所愛何衣, 命着之, 使母與對飲, 故滴酒沾其裙, 女大怒, 病遂瘥.

邱汝誠이 한 여자를 치료하는데, 증상이 웃음을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평소에 가장 아끼는 옷이 무엇인가를 물어 입히게 하여 그 어머니와 술을 對酌하게 하고 술을 그 옷에 한 방울씩 붓게 하자 그녀는 크게 怒하며 병이 나았다.

☞ 소박한 심리치료로서, 怒와 笑의 상반됨을 가지고 치료로서, 상반된 감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간접적 혐오자극법이 이용된 醫案.

(27)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第十二冊, 醫術名流列傳, 錢瑛>²³⁾

寧陽候孫, 生九月, 驚悸數啼而汗, 百方莫效. 瑛後至, 命坐兒於地, 使掬水爲戲, 驚啼頓止. 人問之曰; 時當季春, 兒豐衣帷處, 不離懷抱, 熱鬱難泄, 使近水則火邪殺, 得土氣則臟氣平, 不藥自愈.

寧陽候의 9개월 된 아이가 놀라서 많이 울고 땀을 흘리니 수많은 치료가 소용이 없었다. 錢瑛이 가서 아이를 땅에 앉히고 손을 물에 담그고 놀게 하니 놀라서 우는 것이 곧 그쳤다. 사람들이 물으니 말하기를 ‘계절은 봄인데 아이에게 옷을 많이 입히고 실내에 두고 가슴에 품고 내놓지를 않으니 열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고로 물을 가까이 하여 火邪를 없애고 땅에 놓아 土氣를 받

게 하여 五臟의 기운을 편안하게 하여 약을 먹이지 않고 저절로 치료되는 것이다’고 했다.

☞ 小兒攝生論에 의거한 행동치료 및 환경치료가 이용된 醫案.

(28) <徐靈胎醫書全集. 卷三 洄溪醫案>²⁸⁾

同學李鳴古. 性誠篤而能文.....家貧不得志. 遂得奇疾. 曰夜有人罵之. 聞聲而不見其形. 其罵語惡毒不堪.....其世叔何小山先生甚憐之. 同余往診. 李曰. 我無病. 惟有人罵我耳. 余曰. 此卽病也. 不信. 小山喻之曰. 子之學問人品. 人人欽服. 豈有罵汝之人耶.....惟垂首浩歎而已. 卒以憂死.

같이 공부한 李鳴古가 있는데, 성품이 진실로 도답고 학문에 능하였으나.....집이 가난하여 그 뜻을 못하고 기이한 질병에 걸렸다. 말하기를 밤에 누군가가 있어 욕을 하는데 그 형상을 볼 수가 없고 소리만을 들리는데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 그 숙부 小山선생이 불쌍히 여겨' 나에게 같이 진찰하였는데, 병자는 자신은 병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있어 나를 욕할 뿐이라고 하였다. 徐靈胎가 말하기를 ‘이것은 병이니 병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고 숙부도 말하기를 ‘너의 학문이나 人品이 사람들이 공경할 만하니 어찌 사람들이 너에게 욕을 하겠느냐?’고 하였으나.....환자는 머리를 떨어뜨리고 크게 탄식할 뿐이다. 나중에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갑자기 슬픔으로 죽었다.

☞ 情志病에 대한 정신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醫案으로 볼 수 있다

IV. 고찰

동양인은 서양인과는 다른 독특한 정신세계 속에서 살아 왔으나, 최근 서양의학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정신치료 영역에서 전통적인 東洋思想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는 첫째, 서양 정신치료의 방법상의 한계와 난점을 타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동양사상에서 찾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고, 둘째, 동양에 있어서도 아주 일찍부터(三國志 華佗傳의 기록에 의하면 B.C 200년부터 정신치료

의 흔적이 나타남)¹⁰⁾ 동양 나름의 심리치료방법이 있어 왔으며 그 동안 동양인의 심리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어 왔으며 셋째, 동양인에게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동양적인 방식과 서양적인 방법을 상호보완 할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네째, 동양에 있어서 인간심리에 대한 지각은 거의 분열적으로 混沌상태를 보이고 있는 서양과는 달리 통합적이고 全一的인 것이어서 오히려 동양 특유의 전통적인 심리치료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서양 정신치료의 한계를 동양에서 찾으려는 측면에서 史的으로나 醫學的으로도 의사도 禪師도 道士도 아닌 사람의 정신치료의 예인 祿眞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신치료적 측면에서는 환자인 角干의 증상은 과도한 政事가 stressor로 작용해서 생긴 우울증의 초기며 뿌리가 깊지는 않으나 약물치료가 부적합하여 주로 지지적 정신치료가 사용된 力動的인 진단에 입각한 短期 精神治療의 훌륭한 표본이다¹⁶⁾.

祿眞의 치료에 사용된 정신치료의 기법은 환자의 이성과 지식에 호소한 설득persuasion과 충고advice 및 암시suggestion이며, 특히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 '至言高論'이란 단어는 祿眞이 환자에게 한 언어적 치료기법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至言'은 '지극히 마땅한 말' 혹은 '奧妙한 뜻을 품은 매우 중요한 말'의 의미이며, '高論'은 '見識이 높은 議論' 혹은 '남의 議論에 대한 敬稱'을 뜻하는 것으로⁷⁾ 정신치료적 관점에서 '至言高論'의 사전적 의미는 치료자 내지 相談者counselor가 환자에게 행해지는 넓은 범위의 치료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韓醫學에서는 정신치료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의 이론적 근거가, 서양의학처럼 정신장애의 치료에서 출발하고 이 부분의 치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祿眞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정신과적인 질환 以外の 모든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韓醫學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 精神優位의 치료 관점이 '治神'

의 의미라고 보면 <靈樞·天年篇>⁵⁾에 '失神者死, 得神者生'이라 하여 정신자체가 생명현상이며, 治神은 모든 치료를 우선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고, <靈樞·口問篇>⁵⁾에 '心者 五臟六腑之主也.....故悲哀憂愁則心動, 心動則五臟六腑皆搖'라 하여 心을 중심으로 한 臟象論的 체계에서²⁹⁾ 七情의 不調和 즉 마음이나 정신의 병은 心에 병을 가져오며, 心病은 모든 병의 근본임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또한 <聖濟總錄·治神>³⁰⁾에서도 '治其感疾, 亦察精神意志存亡得失, 以爲治法'라 하여 질병치료에 있어 '精神意志의 存亡' 즉 '神氣'의 관찰을 중요시하였다³¹⁾.

韓醫學에서 정신치료로 이해되어지는 기법은 서양의학처럼 分析的이고 具體的이지는 않고, 祿眞이 '至言高論'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과 같이 포괄적이며 또한 전체적인 攝生에 관한 것이 많다. 韓醫學에서 祿眞의 '至言高論'의 개념을 가지고 정신치료에 대한 것은 內經을 중심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靈樞·師傳>⁵⁾에 '人之情, 莫不惡死而樂生, 告之以其敗, 語之以其善, 導之以其所便, 開之以其所苦, 雖有無道之人, 惡有不聽者乎?'라 하여 醫師가 환자를 다음을 잘 다스리며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開之以其所苦'는 환자의 감정이나 기분을 풀어주고 이끌어 주어 抑鬱된 심리상태를 즐겁게 하여 주어 情緒를 안정시켜 주는 치료를 말하여 지지정신치료의 의미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며³²⁾, '語之以其善'은 치료에 대한 보증과 암시효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告之以其敗'와 '導之以其所便'은 각각 치료에 대한 설득과 충고의 기법으로 볼 수 있다. <素問·移精變氣論>³³⁾에서는 '閉戶塞牖, 系之病者, 數問其情, 以從其意,'라 하여 '醫師가 室內에서 안정을 취하고 정신을 기울여 환자의 마음을 물어 흥금을 터고 마음껏 이야기하게 誘導하여야 한다.'는 해석으로 지지정신치료를 말하여 기법은 환기의 치료기법을 誘導하고 심리적으로 정화를 유도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3,34)}.

內經 이외에도 <儒門事親·九氣感疾更相爲治衍>²¹⁾에 '以愴惻苦楚之言感之.....以謔浪藝狎之言娛之.....以迫懼死亡之言怖之.....以汚辱欺罔之言觸之

.....以慮彼志此之言奪之'라 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³³⁾의 五志相勝治療에 있어 의사가 환자에게 해야 하는 말의 道理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내용은 '側隱하고 괴로운 말로써 감동시키고, 혐오감을 주는 더러운 말이나 위압감을 주는 친근한 말로 즐겁게 하고, 급박하고 두렵고 죽음과 관련되는 말을 하여 공포스럽게 하고, 모욕적이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말로 충격을 주고, 저쪽을 꼼꼼히 생각하게 함으로 이쪽을 바라게 하는 말로 奪取하게 한다.' 역시 지지정신치료 기법과 相通하는 내용이며, 환기나 제반응을 誘導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聖濟總錄·治神>³⁰⁾에서는 '凡治病之術, 不先致其所欲, 正其所念, 去其所惡, 損其所恐, 未能有愈者也' 즉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환자가 그 하고자 함을 이루어 주고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 나쁜 마음을 없애주고, 두려워하는 것을 덜어 주면 치료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여 전체적인 정신치료에 있어서의 기법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³¹⁾.

韓醫學에서 '至言高論'의 의미를 지닌 정신치료의 내용은 歷代 醫家の 醫案에서 찾을 수 있으며, 주로 지지정신치료supportive psychotherapy 및 행동치료behavior therapy적 관점에서 치료가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많아, 이상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연구했다.

醫案(1)-(19)는 주로 지지정신치료가 사용되었는데 그 치료기법을 고찰해보면, 醫案(1)-(9)는 주로 攝生에 대한 '至言高論'이 지지정신치료로서 사용되었으며 기법은 설득 및 충고가 주로 이용되었고, 醫案(10)-(15)는 치료자의 권위를 이용해 치료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로서 환자를 치료한 것들이고, 醫案(16)-(19)는 치료자의 '至言高論'으로 제반응, 정화, 환기를 유도하였다.

醫案(20)-(27)는 '至言高論'에 의한 행동치료가 치료에 이용되었는데, 그 치료기법을 고찰해보면, 醫案(20)-(22)는 痛症을 유발하는 자극의 강도를 조금씩 낮추어 치료한 체계적 脫減作이 치료기법으로 이용되었고, 醫案(23)-(24)는 요구충족을 통한 행동수정기법이 이용되었고, 醫案(25)-(27)은 혐오자극법, 참여적 모형화 등이 이

용되었다. 그러나 醫案(28)은 치료자가 환자에게 구체적인 '至言高論'을 제시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 醫案으로 볼 수 있다.

醫案에 나타난 정신치료와 약물치료와의 併用의 문제에 있어, 서양의학에서는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중 한가지 치료만을 고집하거나,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두 가지 치료의 병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¹¹⁾. 즉, 서양의학에서의 藥物併用이라는 것은 정신치료의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상승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韓醫學의 정신치료의 개념에서 약물사용에 대해 각 醫案을 연구해보면, 醫案(1,3,4,6,7,9,11,13,18)에서는 약물이 併用되었으나 醫案(1)의 加味歸脾湯이 정신치료와 같은 목적³⁵⁾으로 이용되었을 뿐, 醫案(9,11)은 약물사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이고, 나머지는 정신치료를 따라가는 附隨的 치료법으로 사용되었다²⁰⁾. 또한 약물이 사용된 경우도 대부분 행동치료 보다는 지지정신치료의 보조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韓醫學에서 이루어진 정신치료는 약물이나 鍼灸치료가 排除되거나 附隨的으로 이용된 경우 즉 정신·심리치료가 本治이고 다른 치료는 標治가 된 경우, 혹은 순수하게 의사가 환자에게 언어로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指示해서 치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정신치료를 불교의 唯識學的 측면에서 많이 이해하려고 한다. 唯識은 처음에는 전문수행자가 수행중의 심리를 문제를 하고 있는 마음의 종교라 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의 심리분석에 응용되면서 정신치료에도 이용되고 있다^{36,37)}. 唯識에서는 흔히 있는 枝葉의인 煩惱를 隨煩惱라 하고 隨煩惱의 원인이 되는 煩惱를 '根本煩惱'라 하는데,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痴), 아만(慢), 의심(疑), 그릇된 견해(惡見)의 6가지이며³⁶⁾, 이 煩惱를 잊음으로서 마음이 치료되는데, 醫案(1,3,5)에서도 각각 '舒懷抱, 戒煩惱', '戒以懲忿窒欲', '起於煩惱, 生於妄想'를 치료자의 '至言高論'으로 볼 때, '탐욕', '분노', '그릇된 견해'에 해당하는

煩惱의 설득 및 충고의 치료기법이 이루어졌다. 韓醫學의으로도 <素問·上古天真論, 靈樞·本神篇>^{5,33)}에 각각 '有聖人者.....外不勞形於事, 內無思想之患, 以恬愉爲務', '恬淡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 '魂魄不散, 悔怒不起, 五臟不受邪矣.'라 하여 道敎의인 것과 함께 佛敎的 養生에 대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피병에 대한 치료는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韓醫學에서는 심리적 불안이나 억울함으로 생긴 피병을 詐病이라 하며, 醫案(12,13)은 이러한 詐病에 해당된다. 詐病은 원래 仲景이 만들어 낸 이론이나 仲景의 이론은 간단하고 후대에 와서는 실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나 景岳이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법이 나오고 또한 詐病에 대해 4개의 구체적인 醫案이 있다^{24,38)}. 이 詐病의 치료는 거짓을 빌어서 억제된 심리를 풀어주고 외곡된 감정을 조절하는데 치료기법적으로는 암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치료자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三國史記에 나타난 醫案의 치료자인 祿眞은 '列傳'의 한 인물이다. '列傳'은 歷史書에서 王 중심의 敘述되는 年代記의 編制를 止揚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왕이 아니라 個性의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역사를 움직여오는 원동력의 구실을 하는 인물들의 기록으로 파악된다. 즉 과거 東洋에서의 정신치료는 祿眞과 같이 醫師, 宗教人, 禪師가 아닌 영향력 있는 인물 혹은 識者가 의학적 지식이 아닌 理性이나 道德觀에 의해서 치료했을 가능성이 있다^{1,39)}. 그러나 연구된 醫案에서는 대부분 醫師에 의해 치료된 흔적을 보이는데, 이는 '醫案'이라는 것이 醫師의 '임상예'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醫書가 아닌 다른 歷史書에서는 '祿眞'과 같이 醫師아닌 인물이 정신치료를 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정신치료라는 것이 의사의 권위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¹¹⁾ 醫案에 나타난 치료자들 또한 대부분 '祿眞'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醫案에서 치료자가 정신치료를 목적으로 구사

한 언어의 내용을 보면, 枝葉的인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목적인 내용의 의사전달이 간결히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서양심리치료에 있어서도 응집력 있게 필요한 정보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⁴⁰⁾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 韓醫學에서도 오래 전부터 정신치료가 체계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東洋思想인 儒佛仙에서 추구하는 人間觀과 韓醫學의 攝生을 바탕으로 하여, 질병 자체보다는 그 인간의 情緒나 意志를 改變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치료기법에 있어서는 현대정신의 학에서의 것과 이론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동양인의 精神根幹을 이루는 사상이 서양인의 그것과는 다르며, 이것을 치료자가 환자에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과거 동양에서 이루어진 정신치료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신치료에 있어, 東洋思想 및 韓醫學의 攝生과 서양의학의 치료기법을 상호보완 할 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이상 '至言高論'으로 이루어진 정신치료와 관련된 醫案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서양의학과는 달리 정신과적 병을 포함한 광범위한 병의 치료에 정신치료가 이용되었다.
2. 치료기법은 지지정신치료 및 행동치료가 많이 응용되었다.
3. 약물치료와 병행된 경우는 정신치료가 주가 되고 약물은 보조적으로 따라 가는 경우가 많았다.
4. 불교의 唯識學的 측면에서의 정신치료의 가

능성을 제시했다.

5. 치료자의 東洋思想과 韓醫學의인 攝生觀의 이해가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6. 질병 자체보다는 환자의 감정이나 意志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참고문헌

- 1.-李東植. 韓國人の 主體性과 道. 서울. 一志社. 1997:141-2, 144-5, 153-6.
2. 韓東世. 精神科學. 서울. 一潮閣. 1986:253, 258.
3. 金貞淑. 相談理論과 東洋의 人性觀의 關聯性에 관한 연구. 淸州大學校 大學院. 1995.
4. 李春檜. 心理治療에 있어서 分析的 理論과 禪原理의 比較研究. 大邱大學校 大學院. 1990.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97-8,159,164,211,241.
6. 金富弼. 三國史記 列傳 第五 祿眞.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375-6.
7. 張三植. 漢韓大辭典. 서울. 三省出版社. 1988:1457,1980.
8. 王米渠. 中醫心理學概要. 四川.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8:57,62.
9. 王米渠. 中醫心理治療. 重慶. 重慶出版社. 1986:2-4.
10.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239,343.
11. 민성길 외 11人.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2000:621,623-6,630-2,642.
1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神經精神科學. 서울. 하나醫學社. 1997:680,686-690.
13. 李定均.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1984:582-3.
14. Carl R. Rogers. 著, 한승호, 한성열 譯.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1:32-4,40-7.
15. Carl R. Rogers 著, 金基錫 譯. 相談과 心理治療. 서울. 中央適性研究所. 1976:11,13-5.
16. 李炯得 외 5人. 相談의 理論의 接近. 大邱. 螢雪出版社. 1984:288-292.
17. 秦伯未 編. 清代名醫醫案精華.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209.
18. 江權. 名醫類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48,92,114,172.
19. 魏之琇. 續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161,276,650,687,692.
20. 李浚川 외 2人. 情志醫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193,218,224.
21. 張子和. 儒門事親. 台北. 旋風出版社. 1978:卷三20-3,卷六27,卷七10-11.
2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94.
23. 陳夢雷.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第十二冊, 醫術名流列傳, 虞洸, 李明甫, 俞用古, 錢瑛, 徐述, 蔣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152, 159, 236-7,253,259-260,370.
24.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707-9.
25. 俞震 編. 古今醫案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187,280.
26. 朱震亨. 丹溪心法心要. 山東.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5:115.
27. 萬全. 中醫兒科名著集成(幼科發揮, 客件似癩). 北京. 華夏出版社. 1997:461.
28.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卷三, 洄溪醫案. 台北. 五洲出版社. 1981:47.
29.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167.
30.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121.
31. 張登本 외 9人. 中醫神經精神病學.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0:220.
32.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大成出版社. 1990:267.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11-2,23,46.
34. 王琦 외 4人.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

- 社. 1983:72-3.
35. 黃度淵. 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87:227.
 36. 오가노 모리야 著, 일진 譯. 불교임상심리학. 서울. 불광출판부. 1993:97-9.
 37. 朴種. 佛敎相談心理學入門. 서울. 佛敎通信教育院. 1988:76.
 38. 王米渠. 古代醫學心理學.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8:305.
 39. 權五星. 三國史記 列傳의 文學的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1981:10-11.
 40. 朴鐘烈. 心理治療相談論. 弘益齋. 서울. 1996: 91.